긍정의 페미니즘 통한 화려한 더블되기

파워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박 혜 숙
〈여성신문기자〉

오랫동안 페미니즘과 이에 근거한 여성운동은 여성이 '가부장제의 희생자' 내지는 피해자라는 시각이었다. 이 시각은 참으로 오랫동안 숱한 여성들에게 커다란 설득력을 발휘해 왔고 또 위력을 떨쳐왔다.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고 약자로서의 여성 피해에 대한 규명은 여성운동의 출기찬 전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시각을 뛰어넘어 여성=희생자로 규정하는 페미니즘을 정면비판하고 나선 파워페미니즘이 전세계적인 반향을 얻고 있다. 파워(POWER) 페미니즘은 여성이 희생자임을 부기했던 페미니즘을 '빅팀'(VICTIM : 희생자) 페미니즘이라 명명할 수 있다면 여성이 약하다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벗어나 '여성은 강하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페미니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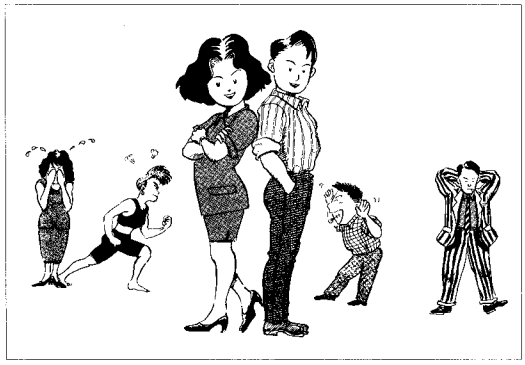
여성의 파워를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핸사하자는 이념을 담고 있는 파워페미니즘의 주창자는 미국의 신세대 페미니스트인 나오미 울프(NAOMI WOLF)다. 나오미 울프는 31세의 영페미니스트로 예일대를 나와 여성이슈에 대한 강의와 주로 글을 쓰는 작가로서 현재 워싱톤 D.C.에서 살고 있다. 울프는 파워페미니즘 이념을 93년에 (불에는 불로(FIRE WITH FIRE))란 저서를 통해 처음 구체화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해 상당한 속도로 지지층을 얻어 가고 있다.

파워페미니즘이 위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과연 파워페미니즘이란 빅팀페미니즘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울프는 과거 대부분의 페미니즘 이론이 아무리 다양한 이념과 전략을 담고 있다해도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공통된 것은 여성은 희생자라는 빅팀페미니즘이었다고 규정한다. 반면 파워페미니즘은 빅팀페미니즘과는 달리 여성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워페미니즘은 따라서 여성이 희생자요 수동적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역발상'의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안과 겉을 뒤집어 버린 이론이 바로 파워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울프는 여성이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강요된 희생을 겪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울프가 주창하는 파워페미니즘의 핵심은 빅팀페미니즘이 너무 여성은 희생자란 시각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많은 여성을 끌어끌어들이는데 패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빅팀페미니즘의 한계를 딛고 파워페미니즘을 '전략적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울프는 파워페미니즘이란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힘을 휘두르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었음을 이상화시켰다는 것이다.



울프는 여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설명이다.

파워페미니즘은 여성을 더이상 힘없는 희생자, 수동적인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여성이 그들의 삶을 개척하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력을 떨친다. 울프는 사실 인간으로서의 참여와 권리를 주장하는 오래된 신념인 파워페미니즘의 흐름이 존재해 왔지만 여성은 공격당하고 나약하며 직관적인 천사로 단정하는 신념인 빅팀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위력을 잃어왔다고 본다.

빅팀페미니즘의 부상은 결국 여성의 진보를 더 더디게 해왔고 여성들의 자각을 방해했다는 게 울프의 비판이다. 빅팀페미니즘은 많은 여성과 남성을 소외시키는 비는리성, 부정성, 심지어 배타적인 오점을 형성해 왔다고 본다.

울프의 주장을 따라가보면 파워페미니즘은 한마디로 공정의 페미니즘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이념을 담고 있기에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지 않는 것 또한 파워페미니즘의 무기요, 힘이다. 무턱대고 남성이란 이유로 억압자요, 가해자란 딱지를 붙여씌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협오하지 않고도 여성차별주의를 혐오하게 함으로써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대중여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또 여성은 여성이기에 충분히 지니지 못하는 것들인 존경, 자긍심, 교육, 안전, 건강, 의사표현, 돈, 권력 등 무엇이든 가질만하며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당한 것이고 매력이다. 과거 페미니즘은 여성을 희생자로 규정하면서도 마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나쁜 여자가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부담과 굴레를 씌웠지만 파워페미니즘은 그 반대의 해방감을 준다.

이처럼 울프의 파워페미니즘의 최대 매력은 여성들을 편안하게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게 만드는데 있다. 파워페미니즘이 이처럼 다시 부상하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빅팀페미니즘의 성장에 있다고 본다. 비록 빅팀 페미니즘이 한계는 있었지만 지난 20~30년간 팰쳐진 여성운동은 법적, 제도적 굉동의 달성을 이뤄왔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래학자들도 주장하듯이 이제 21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의 세계 도래란 여성이 과거처럼 희생자로 피해를 입어 왔다는 주장이다. 이런 실패는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은 지지하면서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불리기를 껄끄러워 한다든지, 여성운동의 성과는 달게 받아먹으면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묘한 거부감을 갖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은 남성들에 이르면 더 심각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이 세계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점이다. 울프는 그 이유를 빅팀페미니즘의 '한계'로 보는 것이다. 이 한계는 더이상 빅팀페미니즘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되어서도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빅팀페미니즘이 그간의 여성운동에 큰 성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희생자란을 강조하다보니 여성스스로 힘을 소유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힘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여성이 우수하다는 유일한 증거로 어린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능력적이며 매우 섹시한 것이라는 여성능력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을 발전시켜 여성은 강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럼에 빅팀 페미니즘이 끌어들이지 못한 많은 여성, 남성을 포괄할 수 있고 본다.

파워페미니즘은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공격적'이며, 소유욕이 강하고 자기본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남자를 덕없이 증오하지 않으면서 성차별 그 자체를 증오하는 것으로 본다. 즉 파워페미니즘이란 여성을 계급이나 성적 지향에 의해 나누는 것이 아니며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데 그 핵심이 있다.

여성은 자연적이며 비경쟁적이며 협동적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남성은 비자연적이고 공격적, 경쟁적이며 파워를 지향한다는 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여성 역시 소유욕도 강하고 공격적이고 이기심과 경쟁심도 지니고 있으며 폭력적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설명이다.

희생자 논리 비판, 강한 이미지 제시

권위신장 이후 나타난 신세대여성운동

□출판·독서문화와 도서대여점

◇대형서점에서도 교양서적 코너에는 발길이 뜸하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오히려 책이 덜 팔리는 기현상은 도서대여점 이용실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흥미위주·상업성에 치중하는 경영 지양돼야

영세 출판문화에 한탕주의·물량공세 부추겨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로 접어들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 선선한 날씨를 벗삼아 독서삼매에 빠져 볼만한 요즈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책의 홍수, 출판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하루에도 4백여권 이상의 책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책은 많지만 읽을 책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과도 연관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땀이 들어본 제목의 책, 광고를 통해 접했던 책을 먼저 손에 든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영악한 독자는 내용도 확심히 모른체 책을 구입하는 모험을 하려하지 않는다. 또 한번 사서 본 책은 전공서적이 아닌 이상 책꽂이 한쪽 구석에 파묻혀 버리기 십상이다. 그러기에 책 한권의 값은 너무 부담스럽다. 특히 요즘처럼 시리즈로 나오는 소설류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런 독자의 필요와 상업성이 만나 한몫하는 것이 바로 도서대여점이다. 도서대여점은 몇년전부터 있었지만 그 붐이 인것은 지난 4월경이라 한다. 대학가 주변이나 주택가에 자리잡은 작은 공간이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호응은 주목할 만하다. 쉽급하는 도서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소설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 주부를 위한 잡지등이 주를 이루며 월간지, 계간지도 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책은 신청할 수 있다. 독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책을 쉽게 빌려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도서대여점은 국민의 독서문화형성에 어떤 형태로든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적 경영을 하는 대부분의 출판사에게는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친다. 도서대여점이 날로 늘어날때 출판문화에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독자들이 책을 사서 읽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의 영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과 도서대여점에서 반품하는 도서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열린책방'(이문동)의 김호철씨는 "독자들이 진짜 갖고 싶은 책은 사고 그렇지 않은 책은 빌려서 읽습니다. 출판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책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성의없이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책까지 다 사서 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사실 출판사쪽에서 대여점에 별로 좋은 눈길을 보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내의 광고 등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경향이라고.

그러나 이 때문에 생긴 오늘날 출판문화의 과행적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 베스트셀러를 장기위한 한탕주의와 물량공세, 과잉광고전쟁 등 출판문화의 단면은 소비와 감각의 욕구분출을 뒤쫓는 '서울문화'를 그대로 답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도서대여점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디오점이 들어서면서 영화가 퇴행길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문화는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었다. 비디오점에 버금가게 책은 많이 읽혀야 한다. 도서대여점이 다소 흥미위주의 독서취향을 부추긴다 해도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이런 독서 취향이 오히려 독서문화를 활발케 한다면 장기적으로 출판문화에도 자극이 되리라 믿는다. 다만 도서대여점이 건전한 독서풍토에 기여하는 바를 자각하고 상업성에 지나치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스스로의 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채연 記者〉

□도서구입신청방법

학교안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현재 중앙도서관 사서과는 보통 한달에 2천권 가량의 책을 구입하고 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읽을 책이 없다는 허기를 느낀다. 물론 광범위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독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범하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원하기만 하면 도서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도서관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학부생이 2만원, 대학원생이 2만5천원, 교수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의 구입신청 건수는 1백23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또 비율로 따졌을 때 학부생이 가장 적게 신청하였다.

권범석(중앙도서관 사서과 수서계)씨는 "학생들이 도서구입 신청을 하지 않아 수서계 직원 새명이 도서목록을 참고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청하는 책은 품절되지 않는 한 적어도 두 주 후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주저없이 구입신청을 하라고 당부한다. 도서구입신청서는 각 학과 사무실에 비치돼 있으며 특히 외국어 있는 책일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보다 세달정도 미리 신청해야 한다.

세계인의 상표
SHARP

D.A.L. 시스템과 SOLVER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고 더욱 빠른 — 샤프공학용계산기

기초공학 이용 최고의 선택
EL-509G ₩19,000

32개 미터법 환산 복소수 계산
EL-556G ₩25,000

2라인으로 공식과 해답을 동시확인
EL-512S ₩38,000

풍부한 99개 공식메모리
EL-5030 ₩47,000

16-Digit, 3-Line의 와이드 LCD계산기
EL-5130H ₩55,000

멀티그래픽드로잉 기능의 프로 계산기
EL-9200 ₩79,000
EL-9300 ₩99,000

●D.A.L. 이란?
(Direct Algebraic Logic)
D.A.L system 에서
•연산식이 예 : 10+√(sin 30 + cos 45 =
•이미이지 계산식식 : 10+(30 sin + 45 cos), −
•새로운 계산식식 : 10+√(sin 30 + cos 45)=

●SOLVER기능이란?
(예)식 A=B+C에서 식의단 A의 변수 C를 알고 있을때 변수 B를 구하기만 가능의 계산기보는 B=A C의 새로운 식을 입력해야 했으나 SOLVER기능계산기로는 새로운 식의 입력이 필요없이 A=B+C의 기존 식에다 SOLVER기능을 사용해야 간단한 방식 B의 값을 구입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곤입니다.

신세대를위한 샤프전자수첩 위니드
We need it!
9만원대의 가격에 꼭 필요한 기능은 빠짐없이
포켓에 쏙 들어가는 슬림사이즈
신세대 감각의 패션너블 디자인
권장소비자가격 ₩99,000
117×85×11(mm)85g
9만원대의 가격에 꼭 필요한 기능은 빠짐없이 — 이것이 신세대가 원하는 새로운 전자수첩 「위니드」!
가격만 비싸고 쓰지도 않을 기능이 전혀 들어있는 전자수첩은 신세대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켓에 넣고 다니기에 어정쩡한 사이즈도 신세대는 거부합니다.
고급지 탁월한 것이 본격 신세대용 샤프전자수첩 — 위니드, 크기는 서스 주머니에 가볍게 들어가는 슬림사이즈.
가격은 합리적인 9만원대, 신세대가 익숙한 컴퓨터 키보드의 똑같은 입력방식을 채용하여 사용까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신세대라이프스타일 신세대 비즈니스 샤프전자수첩 위니드

사무 공학용계산기는 전국 어디이서나 신속하고 친절하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여의도) 782-5803(代) 강남(서초) 584-4801

비매품 및 A/S센터
서울 (주)보신바주기 552-6678~3 777-4741~2
서울 (주)대리점 719-8144(대) 접수서울 274-2480(대) 동원전기 698 7312~3 서울전자센터 534-8862~4 서울샵센터대리점 784-3225
(주)서울전자 424-0663, 435-0665 한국전자 44 3035, 254-3020 동방전자 54 6040 성북사진기 54 3180 성신사진기 943-3182 한진 (주)한진사진기 255-7681 중앙 (주)중앙전자 255-7681 (주)사진기나라 552 6621~5 중앙사진기 51 3655 진흥사진기 645-4367 명수사진기 42 6864 조선사진기 44 8856 대한 (주)대한사진기 552 0404~4 88 9866 광주 (주)사진기나라 225-7366~8 삼성사진기 277 5171~2 포항 (주)포항사진기 42 1322 부산사진기 42 1322 울산 울산사진기 68 8277~9 순천 광양 순천사진기 562 5965 대구 (주)사진기나라 351 9667~3 김해사진기 253 2211~4 제주 (주)제주사진기 42 6458 한일 한일사진기 67 3100 제주 한진사진기 51 1244, 21 4866 제주사진기 51 2113 서귀포사진기 32 8915 (주)제일사진기 423 4600 (주)서울사진기 423 6255 (주)한일사진기 464 3834 (주)서울사진기 55 1386 (주)대리점 433-1034 (주)한일사진기 2 8915 (주)서울사진기 423 6255 (주)한일사진기 464 3834 (주)대리점 (주)대리점 (주)대리점